

위기의 한반도와 새로운 통일담론의 모색

최완규(신한대 설립자 석좌교수 겸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

“내전은 전쟁이 아니라 병이다. 적이 내 안에 있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싸운다”.

(Antonie de Saint-Exupery)

조국(신동엽)

“그 멀고 어두운 겨울날
이방인들이 대포 끌고 와
강산의 이마 금 그어 놓았을 때도
그 벽 핑계 삼아 딴 나라 차렸던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꽃피는 남북평야에서
주림 참으며 말없이
발을 갈고 있지 않은가

직녀에게(문병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뚝돌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선 채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그대 몇 번이고 감고 푼 실을
밤마다 그리움 수놓아 짠 베 다시 풀어야 했는가.
내가 먹인 암소는 몇 번이고 새끼를 쳤는데,
그대 짠 베는 몇 필이나 쌓였는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사방이 막혀 버린 죽음의 땅에 서서
그대 손짓하는 연인아,
유방도 빼앗기고 처녀막도 빼앗기고

마지막 머리털까지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작교가 없어도 노뿔들이 없어도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칼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뿔돌 놓아
슬픔은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인아.

누구를 위해 좋은 울리나

존 던 (1572~1632)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점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륙의 일부이다.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의 땅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모래톱이 그리되어도 마찬가지.
만일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의 땅이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를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좋은 그대를 위해서 울린다!

스페인 내전(1936-1939)

국민진영(보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VS 공화진영(진보, 지역적 독립 선호, 자유주의적, 공산주의적 권위주의적 세력 혼재) 대외세력 개입
San Lorenzo de El Escorial, Valle de los Caídos(전몰자의 계곡)

한국전쟁(1950-1953)

자유민주진영 VS 공산진영 대외세력 개입

양 극단에 위치한 두 정치세력 간의 치열한 반목과 갈등 및 대결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내포된 분열적 성격이 동포들을 정체불명의 타인으로 만들고
계급의 적으로 간주. 인간 본능 유린, 국가 간 전쟁보다 내전이 더 참혹하고 희생자 많음.

I. 문제의식

작금의 남북한의 긴장과 갈등 고조 현상은 향후 한국(한반도)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가 북한의 선택과 변화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북한의 선택과 변화의 성격에 따라 한국정치와 경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도 큰 변화를 겪을 것임. 요컨대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다루는가 여하에 따라 북한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희망일 수도 있고 역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북한의 미래에 개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 이제 북한의 미래는 더 이상 추상이 아니라 현실로 대두되고 있음. 이 시점에서 북한의 미래는 예측하기 보다는 만들어 내는 것이야 함.

II.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를 이해하려면 생각의 출발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사회가 아니라 집단주의사회입니다. 집단주의사회의 가장 기본은 개인은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개인을 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해관계와 전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생각과 전체의 생각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광동, 더디 가도 사람생각하지요 중에서)

“거리거리에서 마주치는 평양은 아름답고 구석구석이 정성스럽게 손질돼 있었다. 서방의 어느 기자가 평양은 조악하고 음울한 콘크리트 도시 같다고 했지만 4월의 평양은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전원도시였다. 평양의 첫 인상은 정성스럽다는 것이다. 풍족한 것에 익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고치고 손질하고 페인트칠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다.”

(조광동, 더디 가도 사람생각하지요 중에서)

“잘 포장된 도로들 지나는 모든 마을에는 담으로 둘러쳐져 있다. 외국인이 자주 다니는 곳에서는 인조석으로 지은 2,3층짜리 건물로 장식되어 있다. 그 후면은 대개 포장되지 않은 진흙길, 쓰레기더미, 그리고 낮은 오두막집이 있다.”

(한츠 마레츠키, 병영국가 북한 중에서)

* Orientalism versus Occidentalism.

- * 국가안보 우선주의 paradigm versus 민족우선주의 paradigm.
- * 북한은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 * 시각의 양극화 현상.

III. 북한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북한체제의 지탱력

- * 지탱력(sustainability)= 복원력(resilience)+적응력(adaptability)-급변사태가능성.
- * 북한체제유지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인민의 지지를 기초한 체제가 아님).
- * 최소화된 승자지배연합(minimum winning coalition)구성.
 1. 백두혈통
 2. 항일 빨찌산 혈통
 3. 전사자 피살자 가계(선군 세력)
- * 핵심 측근의 보상

cf 1. 핵심지배세력 최소화

 2. 명목선출인단 최대화(명목선출인단. 실제 선출인단. 핵심집단).
 3. 수입 흐름 차단 일원화.
 4. 지지자들에게는 충성심 유도 정도만 보상
 5. 사회구성원들을 위해서 핵심층의 재정(이익)을 전용하지 말 것.
- * 독재의 핵심은 훌륭한 통치가 아니라 핵심 지지연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 * 안정적인 그리고 예측 가능한 권력승계 체계의 확보.

세습은 최고 지도자나 핵심 지지층 모두에게 유리(win-win game).

권력이 세습될 때, 핵심 지배세력은 특별한 지위를 보유할 확률이 높아짐.
- * 토크빌의 혁명 역설

혁명이란 반드시 사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 압제적인 정부 아래에서도 마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이 별 불평 없이 잘 참아내던 사람들이 그 압력이 완화되는 순간, 정부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혁명에 의해 파괴된 체제는 대개의 경우 바로 그 앞에 선 체제보다 더 낫기 마련이다. 그리고 부패한 정부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일반적으로 그 정부가 스스로 개혁을 시작하였을 때라는 사실을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다. 오랫동안 학정을 일삼은 연후에 시민들의 운명을 개선해주려는 군주들이 권좌를 보존하려면 아주 탁월한 정치적 수완이 요구될 것이다. 한 때는 불가피한 것으로 체념하고 감내하던 폭정도 일단 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즉시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억압으로 여겨지게 된다. 왜냐하면 일부 폐단이 시정될 경우 아직 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폐단은 더욱 참기 힘든 것으로 돌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람들은 고통을 덜 받는 만큼 감수성이 더욱 예민해지는 것이다.

* 강력한 감시 및 통제 메카니즘에 기초한 강력한 국가 대 미약한 사회세력(대중의 선호위장 경향).

* 억제와 강제의 동시적 카드로서의 핵과 미사일

IV. 북한의 미래,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체제전환의 가능성

* 개념정돈

정책 수준. 정권수준. 체제수준. 국가수준

* 변화 유형

suspended animation(Albania). soft landing(China). crash landing(Romania).

suspended animation/soft landing hybrid(Cuba). soft landing/crash landing(USSR).

* 북한의 변화 유형

정책. 정권. 체제. 국가수준

* 체제수준의 변화 조건

1. 정권과 체제안보에 대한 확신과 담보

2. 사회세력의 성장과 핵심지배집단의 응집력 약화(tipping point. revolutionary threshold. 선호위장의 해소 등). 전망이론의 관점(행위자는 손실의 양이 문제시 되는 상황에서 위험 감수 형 태도를 보임).

* 국가수준의 변화

1. 주변 강대국의 북한 경착륙 합의

2. 급변사태 발생 시 남한의 군사개입 성공

3.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여부와 정책 정향

* 루마니아 체제전환 과정이 북한의 체제전환 논의에 주는 함의

1. 음모설(포획된 혁명 또는 대본 혁명)

2. 공산세력의 재집권 이후 체제전환

3. 체제의 성격이 폭력을 수반한 체제 전환 초래

4. 북한체제와 루마니아 체제의 비교

V. 새로운 통일담론의 모색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내 모국어 독일어로 말하는데 그 말을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서독에서의 내 유배생활을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남북이 통일되면 당신들도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이 하는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이 하는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모든 단어를 다 아는데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외국어를 듣는 것보다 더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볼프 비어만)

“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체제경쟁에서 결국 사회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구와 서독이 동구와 동독에 대해 승리한 것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을 함께 추구한 사회민주주의가 당의 독재에 의해 경제적 평등만을 추구한 공산주의보다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우월한 노선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을 의미합니다. 동구권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고르바초프가 자신을 사회민주주의자라고 고백한 것은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에곤 바)

I. 통일논의의 재 점화 배경

1)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치게임

분단관리(과정으로서의 통일 중시)에서 통일준비로의 전환(선진통일론)을 강조하면서 통일세 담론 제기.

통일담론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면서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한국 주도(흡수)의 **평화적 통일**이 가능성을 시사.(김정일 위원장 건강, 경제사정, 3대 세습 문제 등 북한체제 내구성의 한계 봉착 가정을 기초로 함)

전임정부의 분단관리형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임을 지적.

핵 문제, 평화체제, 북한의 정상국가화 등은 통일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해결 가능함을 부각시켜 대북 유화정책보다는 강압정책이 적실성이 있음을 홍보, 설득.

2) 천안함 침몰, 연평도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 필요성의 대두(일반 시민, 학계 일부, 일부 시민사회단체 중심). 특히 단일 국민국가 방식의 흡수통일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전제로 한 새로운 통일담론 모색이 본격화됨. 예컨대 과정으로서의 통일의 의미를 중시하면서 통일목표의 최소화 문제를 다룸.

3) 왜 통일인가?: 당위적 차원의 통일논의

해방정국의 유산극복(남북모두 외세를 배경으로 한 선 정부수립 후 통일추구 노선을 견지한 정치세력이 권력장악, 선 분단극복, 후 정부수립을 추구했던 세력이 몰락. 그 결과 한국전쟁 발발).

진정한 민주. 평화. 복지 국가의 수립은 통일국가 체제 하에서 가능하다는 인식.(분단체제 하에서는 안보군사국가, 적대적 공생, 통일정치 게임, 외세의존, 냉전적인 이분법 사고, 대립적 사유방식, 획일주의, 편협한 민족주의 등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2. 최근 통일논의의 특성

분단이후 한국사회에서 전개되어 온 통일논의사를 살펴보면 집권세력이 주도한 통일론과 재야시민사회세력이 주도한 통일론으로 양분되어 왔음.

사실상 통일문제는 통일된 이후의 국가의 골격(정치이념, 제도, 정부구성 방법, 국가와 사회와의 매개 양식과 형태 등)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이념 및 체제논쟁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그 논의가 집권세력이 설정해 온 통일론의 범위를 넘거나 운동의 차원으로 확산되는 경우, 기존의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대의명분의 정당성은 약화되거나 위협받기도 함. 이 때 집권세력(기존체제)은 반공이나 반북론을 표방하고 이를 정치도구와 물리력으로 뒷받침하면서 체제의 정통성을 유지해 왔음(이승만정부의 북진통일론 대 조봉암의 평화통일론, 장면정부의 선 건설 후 통일론 대 혁신세력의 통일론). 특히 권위주의정권이 민주정권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나 이행 이후 한 동안은 예외 없이 비정부차원의 통일논의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통일논의 또한 과거 정부 때와 동일하게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전임정부와 달리 통일문제를 민족우선주의 패러다임보다는 국가(안보)우선주의 패러다임을 중시하면서 다루고 있음(김대중 정부 이전으로 복귀).

1) 이명박 정부의 통일담론

- * 분단관리(평화)보다 통일추구론(한국 주도의 통일 가능).

통일세

- * 3대 공동체(평화, 경제, 민족) 통일구상(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의 관계).

- * 반북론과 통일편익 강조(분단비용 감소, 중견국가로의 도약,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내수시장 형성, 북한의 자원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

과 자본의 결합

* 북한위기론(붕괴론)에 기초한 흡수통일론(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단일 국민국가 건설). 통일의 한 쪽 당사자인 북한을 정책의 일방적 대상으로만 상정(무력통일방식). 북한을 저임금 생산기지화 함으로써 2등 국민화 시킬 위험성(통합의 위기).

* 공론화과정 생략.

* 대규모의 정책 홍보성 연구용역 추진(하청 또는 주문자 생산방식의 용역).

* 보수진영(친미. 반복. 국가(안보)중심 패러다임에 경도).

2)박근혜정부의 통일담론(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튼튼한 한보를 바탕으로 남북한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

* 과거정부의 대북정책 장점수용, 단점극복, 갈등해소.

* 신뢰 형성과 비핵화 진전에 따른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가동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 작은 통일(경제공동체)에서 시작, 보다 큰 통일(정치통합) 지향.

* 기다리는 통일보다 다가서는 통일

*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 통일대박론

* 사실상의 흡수통일론 대두

3) 비정부 차원의 통일담론

*과정으로서의 통일중시(화해와 경제교류협력-->공동시장(경제공동체)-->다원적 안보공동체(협력안보,공동안보)-->국가연합-->단일(연방) 국민국가.

* 국가(안보)중심 패러다임과 민족우선주의 패러다임의 병존.

* 제도보다는 접촉지역(contact zone)확대를 통한 마음의 통일 강조.

* 북한을 통일의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상정(차이와 다름을 인정)

* 연성복합통일론(다문화와 다국적 민족공동체로서의 한인공동체).

* 온건 보수(중도) 및 진보진영(민족의 주체적 역량. 북한을 통일의 한 쪽 당사자로 인정. 국가(안보)중심 패러다임과 민족우선주의 패러다임 병행).

3. 새로운 통일논의의 방향

1. 문제의식

한국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북한임.

이제 북한 사람들이 구상하는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 그들이 상정하고 있는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하며 소통하는가에 따라 북한은 희망의 대상일수도 있고 재앙의 대상일 수도 있음. 북한의 미래는 예측보다는 만들어야 할 대상임.

통일논의가 논의와 운동 수준에서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통일관 연관된 복잡한 고리를 좀 더 단순화하고 사고의 단절적 도약 내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2) 통일논의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사안들

● 국가중심 패러다임 대 민족중심(민족내부)패러다임

* 평화통일은 단순한 민족의 재결합이거나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제도와 가치를 북한지역에게 일방적으로 이식시키는 것이 아님. 통일은 차이와 평등, 다름과 통합을 공명시키는 과정이어야 함(차이에 대한 사유가 없는 북한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새로운 지속가능한 회를 모색해야 함. 최근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독으로의 귀환' 현상을 눈여겨보아야 함.

* 한반도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체제와 이념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과 강대국이 연계된 민족의 문제임(독일과 베트남의 사례와 다름).

* 민족적 유대를 전제하지 않는 비대칭적 국제연대 내지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음. 남북관계의 역사를 보면 대외적으로 고립된 일방이 고립되지 않은 일방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여 긴장을 고조.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최후의 열쇠는 남북한 당사자들이 쥐고 있어야 함. 한반도 문제가 주변국들의 정책의 종속변수가 되면 통일은 근본적으로 성취해 내기 어려워짐.

* 통일은 민족을 기본으로 하지만 분단이전의 민족으로 회귀하려는 복고적 태도나 배타적인 자민족중심주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음. 다문화 현상과 복합적 동북아신질서를 유의하면서 통일은 다중적 주체가 서로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함.

*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한 북한은 통일의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소통과 관계맺음을 통해서 통일 코리아가 추구해야 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협력의 대상임. 이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느 일방의 변화를 강제하는 정치경제적 통합보다는 먼저 상호변화를 통한 사회문화적 융합을 이루어내야 함.

*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분단 이전의 단일(민족)국가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새로운 통일의 양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목표를 축소하여 최소한의 통일국가를 목표로 할 수도 있음. 예컨대 이 시점에서
는 남북한과 해외동포를 포괄하는 상징적 수준의 코리아공동체를 상정해 볼 수도 있
음.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와 경계와 접촉지대 연구 결과 참고

4. 맺음말

작금의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이론적 차원의 논의 수준) 통일방안
의 최대치는 공동시장을 통한 국가연합 정도를 구성하는 것임.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무리하게 단일국가체제의 통일을 추진하면 다시 한 번 비극적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
으며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내적 식민지화 현상 등 국가통합의 위기 때문에
민족통합에 실패할 공산이 큼.

요컨대 이 시점에서 영토와 제도와 체제가 하나가 되는 통일은 무력통일(당위와 능
력 차원에서 모두 현실성이 없음)을 감행하지 않는 한 불가능 함. 설사 김정은 정권
이 붕괴된다고 해도 그것이 곧 한국주도의 통일로 자동적으로 이어 질 확률은 중국
변수 등을 고려 할 때 높지 않음.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론은 대내적으로는 남북한 모
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benign to US, benign to China의 원칙이
충족되어야 함.

이러한 조건이 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북한의 대안적 통일방안은 결국 시장
(자본)의 논리와 공동체(민족)의 논리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여 단계적 연속적 통합과
정의 전형적 경로인 경제교류-->공동시장(경제공동체)-->다원적 안보공동체-->국가연
합-->단일국가체제 수립(통일)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 지금으로서는 남북한이 미
국과 캐나다 정도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도 훌륭한 통일임. 긴 호흡에서 보면 통일목
표의 최소화라는 발상의 전환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올바른 완전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함.